



2011년 8월 1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김정훈 ☎ 3276-6230
 시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계량분석 | 노근환 ☎ 3276-6226
 파생상품 | 안혁 ☎ 3276-6272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투자전략

8월 월간전략: 변동성 장세 속에 포트폴리오 변화

• 경제분석

6월 산업활동: 내수 역할이 커진 국내 경기

• 계량분석

2011년 순이익 추정치 전월 대비 1.5% 하향

• 이머징마켓 동향

성장둔화, 긴축우려로 중화권증시 약세 지속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삼영이엔씨 외 4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GS건설 외 9종목

• 산업/기업분석

증권, CJ오쇼핑, 기아차,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동아제약, 만도, 서울반도체, 현대모비스, 현대차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7/22(금)	7/25(월)	7/26(화)	7/27(수)	7/28(목)	7/29(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171.23	2,150.48	2,168.70	2,174.31	2,155.85	2,133.21	
	등락폭	26.19	-20.75	18.22	5.61	-18.46	-22.64	
	등락종목	상승(상한)	588(10)	335(7)	527(3)	466(9)	353(9)	340(9)
		하락(하한)	246(0)	489(0)	317(0)	376(1)	477(1)	487(1)
	ADR	120.01	120.79	124.17	122.74	117.75	113.50	
	이격도	10 일	101.44	100.50	101.08	101.13	100.15	99.15
		20 일	101.70	100.54	101.15	101.22	100.23	99.16
	투자심리	50	50	60	60	50	40	
	거래량 (백만 주)	408	338	316	294	295	325	
	거래대금 (십억 원)	7,228	5,813	6,475	6,232	5,770	5,938	
코스닥	코스닥지수	531.24	529.90	535.85	538.12	538.54	536.05	
	등락폭	6.70	-1.34	5.95	2.27	0.42	-2.49	
	등락종목	상승(상한)	582(14)	352(17)	591(20)	516(17)	391(11)	379(11)
		하락(하한)	359(2)	596(5)	344(1)	425(2)	547(2)	565(2)
	ADR	118.71	116.34	120.97	120.85	116.35	110.54	
	이격도	10 일	103.90	103.00	103.25	102.83	102.11	101.08
		20 일	106.57	105.72	106.26	106.06	105.53	104.51
	투자심리	80	70	80	80	80	70	
	거래량 (백만 주)	479	464	501	508	584	481	
	거래대금 (십억 원)	2,253	2,087	2,486	2,611	2,590	2,483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490.6	1,050.2	1,280.4	282.5	127.2	538.4	102.3	51.2	178.8	199.0
	매도	3,376.1	1,197.6	1,131.0	237.4	128.0	495.1	69.1	51.8	149.6	315.5
	순매수	114.5	-147.4	149.4	45.1	-0.8	43.3	33.2	-0.7	29.2	-116.5
	7 월 누계	-1,253.2	1,371.1	806.5	713.7	330.5	22.9	678.5	-1,584.0	644.9	-924.4
	11 년 누계	2,326.3	-817.4	517.6	2,348.8	-673.1	-4,785.3	1,443.4	-1,433.2	3,616.9	-2,026.6
	코스닥	매수	2,279.6	74.6	132.9	14.8	15.5	65.8	5.1	7.0	24.7
매도		2,311.9	95.7	78.6	19.3	13.0	30.7	3.5	3.1	9.0	25.1
순매수		-32.3	-21.2	54.3	-4.5	2.5	35.1	1.5	3.9	15.8	-0.9
7 월 누계		-175.8	-204.3	422.0	58.1	133.3	120.6	36.2	35.5	38.3	-41.9
11 년 누계		63.4	187.0	43.2	87.6	102.9	-162.4	21.5	-57.3	50.9	-293.6

8월 월간전략: 변동성 장세 속에 포트폴리오 변화

8월 월간 밴드	2,050-2,250pt
2011 연간 밴드	1,880-2,400pt
12MF PER	9.8배
12MF PBR	1.25배
Yield Gap	6.3%P

- ▶ 단기 진통 과정, 7월과 마찬가지로 변동성 장을 전망
- ▶ 중소형주와 소프트웨어 업종 주목
- ▶ 8월 KOSPI 밴드 2,050~2,250pt

■ 단기 진통 과정, 중소형주와 소프트웨어 업종 주목

8월 시장도 7월과 마찬가지로 변동성 장을 전망하고 있다. 8월초 미국의 부채협상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나 지출삭감 등의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 일시적으로 연방정부가 지급곤란을 겪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부채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어도 문제, 안되어도 문제인 것이 8월 주식시장이다.

아시아 물가 수준은 하반기에 안정될 전망이다. 물가 안정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끌어 올릴 수 있다면 하반기 KOSPI는 안정된 이익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다만 하반기 전체로 보면 물가 수준은 떨어지더라도 절대 레벨 자체가 높아서 3분기에도 각국 정부는 물가 안정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PER이 올라가는 시기는 3분기 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하반기 전체를 놓고 보면 8월 변동성 장세는 상승을 위한 진통 과정이라 판단된다. 변동성의 내용도 양극단을 달리고 있다. 예를 들어 금과 스위스 프랑(안전자산)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생산성의 혁신이나 경제 구조적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식들이 강세다.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성장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리스크를 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의 소프트웨어 기업 강세와 우리 주식시장의 바이오, 게임주 강세가 그 대표적 케이스다.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8월에도 중소형주 상대 강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기관 수급이 양호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 중소형주가 유리하다고 본다.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중소형주 수급에 긍정적이다.

■ 8월 KOSPI 밴드는 2,050~2,250pt

8월 KOSPI 밴드는 2,050~2,250pt 수준이라 본다. 아직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외 경기에 민감한 수출주 중심의 대형주보다는 대외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내수주 중심의 중소형주가 여전히 8월에도 시장을 이길 것으로 본다. KOSPI 2,050선은 한국투자증권 실적 추정치 기준 12MF PER 9.5배 지점이며 2,250선은 12MF PER 10.5배 수준의 가격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1년 8월 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8월 1일자로 발간된 'Investment Strategy'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월 산업활동: 내수 역할이 커진 국내 경기

- ▶ 국내 경기 반등세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역할 확대되고 있음
- ▶ 서비스업과 소매판매 증가, 내수 지표의 선행지수 기여 확대 등이 이를 뒷받침
- ▶ 미국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당분간 수출보다는 내수 주도형 성장세 이어갈 전망

■ 내수 주도형 국내 경기 상승을 보여준 6월 산업활동동향

6월 산업활동동향은 국내 경기 반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의 역할이 확대됐음을 보여줬다. 우선,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세가 빨라진 것은 양호한 소비 여건을 반영한다. 6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와 1.3% 증가했다. 또한 설비투자는 전월의 급등에 이어 6월에도 0.5% 늘었고, 계속 부진했던 건설투자 부문도 크게 반등했다.

■ 내수 지표의 선행지수 기여 확대

둘째, 선행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 상승한 데에도 내수 관련 구성지표의 영향이 컸다는 점이다. 6월 선행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해 전월의 1.3%보다 높았고, 전월 비로도 0.5% 올라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0개의 구성지표 중 소비 심리 개선과 국내 건설수주 및 기계수주 증가 순으로 선행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내수 여건과 관련이 깊은 지표들이다.

■ 미국 회복 가시화되기 전까지 내수 주도형 성장세 이어

대외 악재 영향으로 2분기 전체 경제 성적은 1분기보다는 떨어졌다. 그러나 월간으로 경제 동향으로 보면, 5월 이후 국내 경기가 양호한 속도로 반등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6월 지표가 부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경기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비록 대외 여건에 영향을 받는 수출의 성장 모멘텀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역할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유럽발 재정 위기는 일단 진정됐고 미국도 악재에서 벗어나고는 있지만, 미국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아직 불안한 상황이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이 6월에 일부 회복(427억엔)됐으나 지진 이전 수준(554억엔)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새로운 악재인 부채 한도 조정 문제가 소비 심리 회복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돼 당장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미국 경기가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되기 전에 국내 경기는 내수 주도형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상기 보고서는 2011년 7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2011년 순이익 추정치 전월 대비 1.5% 하향

■ 순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지속

당사 유니버스 종목의 2011년 순이익 추정치가 두 달 연속 하향되었다. 보험, 철강/비철금속 업종 등의 추정치가 높아졌으나 반도체/반도체장비, 통신서비스 업종 등의 추정치가 각각 수요 부진 및 마케팅비 증가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2년 순이익 추정치도 전월 대비 0.6% 낮아졌지만, 신세계(004170)의 마트 부문 인적 분할로 인한 추정치 감소 고려시 실질적으로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 보험, 철강/비철금속 업종 2011년 순이익 추정치 상향

당월 2011년 순이익 추정치가 전월 대비 상향된 업종은 보험, 철강/비철금속 업종 등이었다. 보험 업종의 경우 IFRS 전환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중지,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 등으로 순이익 추정치가 전월 대비 18.0% 높아졌다. 철강/비철금속 업종의 순이익 추정치는 하반기 철강 가격 반등이 예상되어 3.2% 상향되었다. 호텔/레저 업종은 3D 영화 관람객 증가 등으로 순이익 추정치가 1.8% 늘어났다. 한편 운송 업종은 유가상승 및 컨테이너 운임 하락으로 2011년 순이익 추정치가 전월 대비 27.6% 하향되었고, 반도체/반도체장비 및 디스플레이 업종은 IT 수요 부진으로 이번 달에도 순이익 추정치가 각각 3.6%, 9.2% 낮아졌다. 통신서비스 업종의 순이익 추정치는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에 따른 마케팅비 확대로 전월 대비 9.4% 하향되었다. 전력/가스 업종은 연료 믹스 악화로 2011년 예상 적자폭이 1,676억원으로 확대되었다.

■ 12개월 forward PER은 9.9배, forward PBR은 1.3배

2011년 7월 28일 종가 (KOSPI 2155.85) 기준 12개월 forward PER은 9.9배로 전월의 9.8배 대비 상승했다. 12개월 forward PBR은 1.3배, 2011년 예상 배당수익률은 1.3%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1년 7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성장둔화, 긴축우려로 중화권증시 약세 지속

- ▶ 중국 6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비 0.2%p 하락
- ▶ 인민은행 금주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320억 위안 유동성 공급
- ▶ 은감위, 2분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50%의 부동가격하락 감당 가능

■ 중국 시장

지수 이틀 연속 약세
6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비
소폭 하락
8월 초 추가긴축에 대한
경계심리 강화
항공, 석탄, 전자재, 철강
업종 약세 주도

상해종합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했다. 경기선행지수 발표를 앞두고 성장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장 중에 지수가 2,680p대까지 하락했으나 오후 장 들어 반등에 성공해 2,700선을 지켜냈다. 6월 경기선행지수가 5월 대비 0.2%p 소폭 하락해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지만 8월초에 발표될 제조업PMI에 대한 경계심리는 지속됐다. 인민은행이 금주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기준을 인상 압박을 시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악재로 작용했다. 국제 비철금속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비철금속이 큰 폭으로 내렸다. 은행권이 철도부 소속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운송관련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다. 항공, 석탄, 전자재, 철강, 음식료 등의 낙폭도 컸다. 그러나 양로보험금(Pension Fund)의 주식투자 확대 전망,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호조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이 강세로 마감해 지수 낙폭을 제한했다.

■ 홍콩 시장

H지수 이틀 연속 하락
채무상한선 상향조정에 대한
미국의회 투표 지연
철도, 비철금속, 석탄 관련
종목 약세 주도

H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미국 의회에서 채무상한선 상향조정에 대한 투표가 지연돼 디폴트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증폭됐다. 철도부 소속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이 철도건설 관련주의 급락으로 연결돼 지수를 끌어내렸다. 비철금속, 석탄, 석유, 제약 등 종목의 하락폭도 컸다. 은행, 부동산주는 동반 약세를 나타냈지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7/29(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702	-0.3	-2.5	-2.2	-3.8
홍콩 H	12,374	-1.1	-1.8	-1.6	-2.5
인도 SENSEX	18,294	0.5	-2.3	-2.9	-10.8
러시아 RTS	1,971	-0.7	-0.3	3.4	11.3
브라질 보베스파	58,708	0.7	-2.6	-5.9	-15.3
베트남 VN	406	-0.7	-0.9	-6.2	-16.3
MSCI 이머징마켓	1,145	-0.3	-0.7	-0.1	-0.5

주: 29일 오후 6시 기준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종목/테마	내 용
하이닉스(000660) ▶24,250원(+2.97%)	경쟁사의 D램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며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업체인 일본 엘피디, 대만의 렉스칩과 파워칩 등이 D램 가격 회복을 위해 감산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상승 - D램 7월 하반기 고정가는 0.75달러를 기록해 7월 상반기 대비 10.7% 하락했으며, 경쟁업체의 감산이 확정될 경우 동사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네오위즈게임즈(095660) ▶62,300원(+3.66%)	공격적인 글로벌 공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칭 슈팅(FPS)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중국 온라인게임 사상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따라 급격한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신고가 경신 -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매출성장세는 50%이상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연간 예상 매출규모는 6,000억원 이상으로 전망
크루셜텍(114120) ▶19,850원(상한가)	갤럭시탭 부품 단독공급 및 오버행 이슈 해소에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 갤럭시탭 10.1에 플래시 LED 단독공급 및 인텔 캐피털에 대한 오버행(물량부담) 이슈 해소에 힘입어 상한가 - 플래시 LED 솔루션은 카메라의 조도를 향상시키고, 발광분포를 최대로 확대해 모바일 제작 단계부터 고객사에 특화된 설계디자인을 제공함에 따라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
하림(136480) ▶7,360원(+7.76%)	美 닭고기 업체 인수 소식에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사업 확장을 위한 미국 닭고기 업체 앨런패밀리푸드 인수 소식에 양사의 시너지 효과 기대감이 부각되며 급등세 - 이로써, 중장기적으로 선진양계 기술 및 현지 유통시장의 노하우를 습득해 국내에 접목할 수 있어 글로벌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제약주	상비약 약국의 판매로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가 취약시간대에도 가정상비약 구매를 허용하고자 약국의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예고 소식에 강세 - 부광약품(003000, +8.57%), 조아제약(034940, +8.11%), 서울제약(018680, +6.65%), 동화약품(000020, +6.23%), 명문제약(017180, +5.47%), 한독약품(002390, +3.75) 등 강세
슈퍼박테리아주	‘슈퍼박테리아’ 공포감이 확산되며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전역으로의 ‘슈퍼박테리아’ 공포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큐로컴이 개발한 슈퍼박테리아 치료제에 관련한 일본 특허 승인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 - 큐로컴(040350), 큐로컴홀딩스(051780, 이상 상한가), 케이피엠테크(042040, +9.59%), 세운메디칼(100700, +5.58%), 삼진제약(005500, +3.70%)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삼영이엔씨 외 4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삼영이엔씨 (065570)	6,450 (+2.4)	6,300 (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10억원(+1% YoY), 49억원(-7% YoY)으로 예상. 영업환경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양호한 실적 - 하반기 영업환경 개선으로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전망. 고마진 제품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은 26%대로 회복 예상 - 2011년 추정 EPS 기준 PER은 5배 수준으로 국내 독점적 시장 지위, 사상 최대 실적 행진 지속, 국내외 해상 규제강화로 인한 수혜 등을 감안하면 저평가 상태
화인텍 (033500)	5,470 (+2.2)	5,350 (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잠재된 약재는 모두 노출된 상태로 주가에 상당 폭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3분기부터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LNG 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에 대한 기대 확산 가능성 - 3분기 수주 예상 금액은 1,400억원으로 이는 동사의 현 시가총액과 유사한 규모
인터로조 (119610)	10,450 (+13.0)	9,250 (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매출액 59억원(YoY +21.4%, QoQ +9.5%), 영업이익 21억원(YoY +14.7%, QoQ +35.5%)으로 추정(영업이익률은 35%로 전분기대비 6%p 상승) - 기존 매출처인 유럽권역에서의 매출 호조와 더불어 중국 호리엔사 매출 9억원(추정) 발생으로 고객사 다변화 효과 기대 - 3분기 신제품 원데이씨클렌즈 출시 및 마케팅 강화로 현재 미미한 (2% 내외)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빅솔론 (093190)	4,640 (+7.2)	4,330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S프린터 부문의 5가지 신제품 출시 및 신형시장 개척 등으로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 지속될 전망 - 무차입경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점(2010년 말 기준 20%)과 190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도 긍정적 - 2011년 추정 EPS 기준 PER은 4배 수준으로 양호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저평가 상태
웅진생크빅 (095720)	18,450 (+8.8)	16,950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학교 사업 철수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전집 사업 일회성 비용 소멸로 2분기부터 외형 회복 및 수익성 개선 예상 - 하반기 학습지, 영어학원 사업의 성장 및 신규 사업 효과로 실적 개선 모멘텀 부각될 전망 - 웅진패스원(지분율 62%) 상장 및 배당주 매력(배당수익률 6.4%)도 긍정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GS건설 외 9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1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GS건설 (006360)	119,000 (-1.2)	120,500 (7/28)	9,444.1	728.9	515.8	10,192	11.7
- 글로벌 정유설비 시장의 투자 확대에 따른 해외 수주 본격화 및 이익 안정성 강화 전망							
대한항공 (003490)	67,200 (-1.9)	68,500 (7/28)	12,524.7	841.2	372.1	5,405	12.4
- 하반기 여객 및 환승 수요 호조세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화물부문의 경쟁 우위와 운항 효율성 개선으로 중장기 성장성 확보							
유진테크 (084370)	17,950 (-1.6)	18,250 (7/26)	147.4	31.0	28.1	2,167	8.3
- 삼성전자 등 주요 고객사의 하반기 메모리 투자 확대 및 미세공정 전환 추진으로 수주 모멘텀 지속 전망							
한세실업 (105630)	7,680 (+3.5)	7,420 (7/20)	889.0	44.0	36.3	1,211	6.3
- 원면가격 안정과 판가 인상으로 하반기 수익 개선 전망. 니트류에 이어 우븐(Woven) 사업부문의 매출 성장 기대							
영원무역홀딩스 (009970)	46,400 (+14.1)	40,650 (7/12)	96.5	87.1	84.7	7,847	5.9
- 자회사인 골드윈코리아 가치 및 영원무역의 실적 호조,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동우 (088910)	4,630 (-4.0)	4,825 (7/1)	213.0	25.6	24.6	1,076	4.3
- 국내 2위의 육계 계열화 전문업체로 육계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 - 계절성을 보이는 분기 실적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과 중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송원산업 (004430)	18,350 (+8.6)	16,900 (6/21)	706.3	70.3	50.1	2,089	8.8
- 페놀가격 하락효과(5월 고점대비 -25%), 한-EU FTA로 인한 관세(6%) 철폐효과, 제품가격 상승 추세 등에 따른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GKL (114090)	23,350 (+23.2)	18,950 (6/13)	559.0	133.4	69.7	1,127	20.7
- 중국인 입장객 증가, 홀드를 안정화 및 마케팅 비용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지속 전망							
고려이연 (010130)	437,500 (+24.6)	351,000 (5/23)	5,054.9	912.0	819.7	46,378	9.4
- 낙폭과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부각 가능성. 또한 신규 설비 가동 본격화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LS (006260)	109,500 (-1.8)	111,500 (5/20)	428.9	402.4	380.1	13,687	8.0
- 전력, 통신, 제련, 기계, IT, 자동차 등 다양한 자회사 사업 portfolio에 의한 안정적 실적 성장세에 주목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GS건설, 대한항공, 고려이연, LS를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GS건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증권: 1QFY11 Preview: 브로커리지 수익 둔화로 순익은 예상치 하회

■ 1분기 합산 세전이익, 전기 대비 17% 증가하겠지만, 전망치 22% 하회 예상

당사 증권업 유니버스의 1분기 세전이익 예상치는 약 3,900억원으로 기존 전망치를 22% 하회할 전망이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17% 증가하겠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전기 대비 증가율에는 전기의 유가증권 트레이딩 손실이 적지 않은데다, 일회성 판관비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한다. 이번 분기에는 이 같은 부담이 감소했고, 거래 대금이 1%라도 증가했으며, 현대증권의 현대건설주식 매각이익 670억원 등이 작용했는데, 낮은 주가지표처럼 만족스럽지는 않다.

■ 브로커리지 수익 둔화, 트레이딩 실적 부진, 일회성 판관비 등 작용

1분기 부진 원인을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한다. 1) 브로커리지 부문의 수익 둔화다.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기 대비 1.5% 증가한 9.2조원으로, 수익 추정에 가정한 FY11 9.2조원에 부합했다. 반면, 합산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은 전기 대비 0.8% 증가해 거래대금 증가율에 소폭 못 미칠 전망이다. 2) 트레이딩 실적의 회사별 편차가 큰 데, 실질적 내용 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현대증권의 현대건설 매각이익을 트레이딩 실적으로 계상) 3) 판관비는 일회성 요인이 컸던 전분기 보다 줄었지만 감소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4) 단기금리가 소폭 상승해 이자수지도 감소했다.

■ 삼성, 키움 실적 양호한 반면, 우리투자, 대우는 부진

회사별로 보면 삼성, 키움, 현대 등이 양호하고, 우리투자, 대우, 대신이 부진하다.

삼성은 브로커리지 M/S가 소폭 상승하면서 전분기에 이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전체 랩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었지만, 랩 수수료 수익 역시 선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키움은 5~6월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주식평가손실이 발생했지만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율이 시장 거래대금 증가율을 소폭 상회한 데 힘입어 양호한 수준의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은 전술한 일회성 요인 탓이 크다.

반면 우리투자과 대우의 실적은 부진할 전망이다. 우리투자는 브로커리지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데다 한전KPS 주식평가손 160억원, 임금인상 소급 등 일회성 인건비 180억원이 추가로 인식되면서 이익이 급감했다. 대우는 채권운용손실 등 트레이딩부문에서의 손실 규모가 이전 분기들 보다 축소 됐지만 브로커리지 영업력 약화가 지속된 여파로 이번 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

■ 실적 부진은 낮은 주가 지표에 투영 중. 키움증권 Top-pick, 우리, 삼성 선호

장기적으로 금융업종 중 성장을 논할 수 있는 업종은 자산운용업으로 좁혀지는 환경이라고 전망하며, 대형 증권사의 수익모델 변모 및 수혜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한다. 밸류에이션 낮은 대형 증권주 및 현재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회사를 중심으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Top-pick은 현재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키움증권(039490/TP 75,000원)을 고수한다. 안정적인 이익 전망, 그리고 하반기 증시 회복에 따른 이익 모멘텀을 고려했다. 나머지 종목 중 PER, PBR 모두 낮은 우리투자증권(005940/TP 28,000원), 핵심 수수료이익 뒷받침 덕에 이익 안정성 높은 삼성증권(016360/TP 98,000원)을 대형 증권주 중 선호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1년 7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CJ오쇼핑(035760)

매수(유지)

목표가: 350,000원(유지)

종가(7/28): 282,600원

국내외 모두 앞서가는 CJ오쇼핑

■ 해외사업 현황 점검 - level up 진행 중

우리는 인도, 베트남 홈쇼핑 사업의 고성장과 중국 여타 지역으로의 확대가 CJ오쇼핑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전역 방송 허가과 상해에서의 제2채널 확보를 통해 중국 홈쇼핑 사업의 성장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2011년 동방CJ의 취급고 규모는 기존 추정치인 1조 1,4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 홈쇼핑 사업은 2012년 중 월 취급고 1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7월부터 방송이 시작된 베트남 홈쇼핑 사업은 초기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사는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2013년 BEP를 예상하고 있다.

■ 동방CJ 수익성 회복

2분기 동방CJ의 수익성이 다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시장 확대 전략에 따라 연초부터 상해 주변지역으로 사업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일시적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지난 1분기 동방CJ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5% 줄어들었다. 그러나 2분기부터는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분기 동방CJ의 영업이익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낮은 110억원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인 이익 정체보다 2012년, 2013년 규모 확대에 따른 이익 성장에 주목하며, 중국 홈쇼핑 시장의 고성장에 가장 큰 수혜는 선두업체인 동방CJ에 집중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앞서가는 국내 영업실적

CJ오쇼핑의 국내영업현황은 홈쇼핑 업체 중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급고 신장률은 25% YoY로 가장 높을 것이고, 영업이익도 15% YoY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사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유사하거나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TV홈쇼핑 업계 전반적으로 SO수수료가 30% YoY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여전히 두 자리수 증가를 나타낸 점은 고무적이다. 보험매출도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의류 등 유형상품 MD가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SO수수료 증가는 자회사로 보유한 CJ헬로비전의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CJ오쇼핑의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 투자의견 매수, 적정주가 350,000원 유지

CJ오쇼핑에 대한 매수의견과 적정주가 35만원을 유지한다. 국내 영업실적도 앞서나가고 있으며, 해외사업의 고성장과 수익성 확보는 국내 유통업체 중 유일하다. 중국 홈쇼핑 사업의 수익성은 2분기부터 회복, 하반기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인도와 베트남 홈쇼핑 사업의 고성장을 기대하며, 2013년부터 수익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09A	644	102	103	79	7,358	173.4	123	9.7	7.4	1.4	14.9
2010A	711	121	126	93	10,222	38.9	136	22.6	11.4	4.1	20.6
2011F	787	144	149	113	18,868	84.6	156	15.0	12.5	2.6	22.6
2012F	853	163	187	142	23,188	22.9	173	12.2	11.3	2.2	19.7
2013F	918	180	226	172	27,452	18.4	189	10.3	10.3	1.9	19.7

*상기 보고서는 2011년 7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기아차(000270)

매수(유지)
목표가: 105,000원(유지)
종가(7/28): 77,500원

2Q11 review: 'K' 모멘텀 하반기에 더 강화될 전망

■ What's new : 순이익 예상치 크게 상회

2분기 기아차 실적은 우리의 예상치를 상회했다. 매출액은 6조 8,538억원(+18.8% YoY)으로 예상치를 1.3% 상회했지만, IFRS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원/달러 환율 하락(2Q10 평균 1,165원 → 2Q11 평균 1,083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4% 감소한 4,850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영업이익률 7.1%(전년동기 9.3%)를 달성했다. K-GAAP 기준으로 환산한 영업이익률은 7%로 우리 예상치 7.5%를 하회했다. 그러나 IFRS 연결기준 순이익은 해외법인의 수익성 개선과 지분법이익 증가로 탁월한 성장세를 보여 1조 1,280억원(+66.9% YoY, +18.3% QoQ)을 기록했다.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순이익은 우리 예상치를 30.4% 상회한 1조 1,068억원이다. 내수와 수출 ASP는 각각 전년동기 1,790만원, 11,800달러에서 1,850만원, 13,300달러로 상승했다

■ Positives : K2 출시로 강화된 lineup

9월부터 K5가 미국 조지아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어서 미국시장 모멘텀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4분기에는 국내시장 K5 출고기간(현재 3개월)이 줄어들어 평균판가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신형 Pride는 K2라는 이름으로 7월 20일 중국(목표판매량 11년 50,000대, 12년 100,000대)에 출시되었고, 9월 한국, 미국, 유럽에도 출시될 예정이다. 상반기 기아차는 123만대(+24.5% YoY)를 판매했다. 동사의 2분기 내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한 122,714대를 판매했지만, 해외판매(수출 271,856대(+16.7% YoY), 해외공장 판매 227,098대(+37.8% YoY)) 강세로 총판매는 19.4% 증가한 621,668대를 기록했다. 강해진 'K' 모멘텀으로 인해 기아차의 하반기 판매대수는 132만대(+15.2% YoY)로 상반기대비 6.6% 증가할 전망이다. 6월 말 동사의 글로벌 재고는 전년동기 2.6개월분, 11년 3월 2개월분에서 사상 최저인 1.7개월분으로 감소했다.

■ Negatives :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선에 근접하면...

원화강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선에 근접하면 기아차의 높은 수출비중과 낮은 해외공장 판매비중으로 부정적인 투자심리가 기아차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 투자 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105,000원 유지

기아차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12개월 forward PER 13배(업종 평균 목표 PER)를 적용한 목표주가 105,000원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1P				증감률		2011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6,768.2	6,853.8	1.3	6,997.8	2.4	18.8	26,754.3	27,042.9
영업이익	506.9	482.5	(4.8)	586.2	(7.3)	13.9	2,042.4	2,158.5
영업이익률(%)	7.5	7.0	(0.4)	8.4	(0.7)	(0.3)	7.6	8.0
세전이익	1,061.2	1,396.3	31.6	1,108.0	13.1	96.6	4,821.4	4,259.6
순이익	849.0	1,106.8	30.4	904.4	19.5	98.4	3,712.4	3,366.3

* K-GAAP 기준
자료: 기아차, 한국투자증권

*상기 보고서는 2011년 7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대우조선해양(042660)

매수(유지)
목표가: 45,000원(하향)
종가 (7/28): 38,500원

훌륭한 상반기, 무난한 하반기

■ What's new : 예상치 부합한 2Q 실적

2분기 IFRS 별도기준 매출액은 3조 1,780억원(+12.6% YoY, +4.1% QoQ) 영업이익은 3,399억원 (+218.0% YoY, -19.2% QoQ)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0.7%로 전반적으로 우리의 추정치와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이었다. K-GAAP으로 환산한 영업이익률은 9.6% 수준으로 추정된다. K-GAAP에서 영업외손익으로 인식되던 파생상품평가손익과 잡손익이 K-IFRS에서는 영업손익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2분기에 원화강세 영향으로 파생상품평가이익이 340억원 인식되었고 잡손익 17억원이 발생했다. 2분기 매출액 비중은 상선이 68.8%, 해양플랜트가 25.8%, 기타가 5.4%이다. 해양플랜트 비중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점차 증가하여 2011년 연간으로는 약 37%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익성이 높은 해양플랜트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실적에 긍정적이다.

■ Positives : 후반기 가격 상승 반영하여 공사손실충당금 인식, 하반기 실적 변동성 최소화

후반기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공사손실충당금 225억을 2분기에 미리 인식하였다. 강제 입고기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분을 미리 비용으로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하반기 후반기 가격 상승에 의한 실적 변동성이 일정부분 상쇄된 것으로 판단된다.

■ Negatives : 영업외 수지 악화

영업외수지가 -1,169억원 발생하여 악화되었다. 금융손익(이자손익)은 175억원으로 이익을 기록하였으나 원화 강세로 환관련 손실이 약 800억원 발생하였고 자회사 관련 일회성 손실이 550억원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자회사 관련 일회성 손실은 보수적인 회계처리로 인한 것이며 향후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결론 : 실적추정치 하향 조정, 목표주가 45,000원으로 하향

2012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추정치를 각각 7.8%, 26.9%, 28.4% 하향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기존 55,000원에서 45,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2011년에 수주 받은 대규모 드릴십 및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이 2013년부터 매출에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2012년 실적은 상대적으로 2011년 대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기 이후 수주받은 저 수익성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단, 컨테이너선 및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하반기 수주모멘텀이 경쟁사대비 강할 것으로 기대되어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2Q11P				증감률		2011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3,018	3,178	5.3	3,103	4.1	12.6	12,114	12,304
영업이익	347	340	(2.0)	300	(19.2)	218	1,164	1,081
영업이익률(%)	11.5	10.7	(0.8%p)	9.7	(3.1%p)	6.9%p	9.6	8.8
세전이익	374	223	(40.4)	315	(29.2)	(7.0)	1,217	1,127
순이익	285	170	(40.3)	241	(28.7)	(3.6)	927	865

주: 당사 추정치 및 컨센서스는 K-GAAP, 2Q11P 실적은 K-IFRS 기준(지분법손익 미반영으로 세전이익 크게 차이남)

*상기 보고서는 2011년 7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대한항공(003490)

매수(유지)
목표가: 100,000원(유지)
종가(7/28): 68,500원

3분기에는 보여준다

■ What's new : 2년 만에 분기 영업손실 발생

IFRS 별도 기준 2분기 영업손실 규모가 375억원으로 시장 예상치(약 200억원)보다 컸다. 여객부문은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데 6월 화물 수요가 예상을 하회한 것이 이유다. 2분기 당기순손실은 44억원으로 전년동기(2,234억원)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 외화환산수지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IFRS연결 기준 2분기 영업손실은 197억원이며, 순이익은 337억원이다. 연결기준으로 순이익이 발생한 이유는 S-oil로부터 지분법이익이 인식되기 때문이다.

■ Positives : 하반기 수요전망이 매우 밝다

성수기 여객수요가 매우 좋아 3분기 실적이 기대된다. 상반기에는 계절적 비수기에 일본 지진 영향으로 여객수요가 기대를 하회했다. 2분기 국제선 여객수요(RPK)는 6.4% 늘어났지만, 7월과 8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각각 12%, 15%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성수기에 맞춰 신규 항공기가 대거 도입되기 때문인데, 6월에만 네 대, 7월에 두 대, 8월에 한 대가 도입되면서(여객기 기준)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항공기 도입이 적은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 여객수요 증가율은 5~6%에 그칠 것으로 보여 차이가 클 전망이다. 3분기에 화물은 비수기라 크게 주목 받지 못하지만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8월 또는 9월부터 기저효과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 Negatives : 유가가 또 오르면...

여전히 높은 유가는 부담요인이다. 현재 항공유가는 4월 고점대비 8.2% 하락한 배럴당 130달러 수준이지만, 2분기 평균유가(131달러)와 비슷해 여전히 부담되는 수준이다. 5월과 7월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됐고 유가가 더 오르지 않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유가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투자심리에 부정적일 수 있다.

■ 결론 : 모든 악재 다 반영. 전망 밝아 주가도 오를 것

현재 주가는 3월 지진 이후 27% 상승했지만 아직 연초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대한항공의 이익과 주가가 하반기에 돋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근거는 국제선 여객수요 증가 모멘텀이다. 상반기에 고유가와 지진으로 부진했던 기저효과까지 더해져 하반기 실적 개선 폭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는 3분기 영업이익을 3,327억원으로 전망한다(WTI유가 98달러 기준). 유가만 더 오르지 않는다면 4분기 실적도 3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9월부터는 환승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10~11월은 화물이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10만원을 유지한다.

	2Q11P				증감률		2011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895	2,944	-	2,953	4.4	2.0	12,525	12,183
영업이익	(20)	(20)	-	81	NM	NM	841	799
영업이익률(%)	(0.7)	(0.7)	-	2.7	-	-	6.7	6.6
세전이익	(112)	51	-	133	(86.2)	NM	491	910
순이익	(85)	34	-	96	(87.6)	NM	372	682

*상기 보고서는 2011년 7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동아제약(000640)

매수(유지)
목표가: 151,000원(유지)
종가(7/28): 110,500원

하반기엔 실적도 신약 파이프라인 모멘텀도 좋다

■ What's new? : 영업이익 14.1% 감소, 그러나 실적 부진은 2분기까지만

K-GAAP 개별 기준 동아제약의 매출(2,245억원, 1.4% YoY)은 전년대비 정체했고, 영업이익(247억원)은 전년대비 14.1% 감소했다. 리베이트 규제 여파로 인한 실적부진은 시장에서 이미 예견했던 바이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전문의약품(ETC)의 비중축소(-2.2%p YoY)와 원재료가 상승 때문에 원가율이 전년대비 2.9%p 증가했기 때문이다. 2분기에 예상했던 GSK와의 공동판매에 따른 수익(약 20억원) 인식이 하반기로 지연된 것도 영업이익 부진에 한몫 했다.

■ Positives: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Bayer 통해 중국 간다. 해외 진출 기대감 더욱 높아져

비록 2분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하반기 주가 상승을 견인할 신약 파이프라인 모멘텀은 견고하다. 동아제약이 1) 국내 판권을 매입한 메디포스트의 줄기세포 치료제 국내허가, 2) 천연물 신약 제품출시 및 3)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미국 임상 3상 완료(경구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동사의 슈퍼박테리아 항생제를 기술도입한 미국 Trius사가 중국제약시장 1위 업체인 Bayer(글로벌 13위)와 손잡고 중국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원래 공략대상인 미국 시장 이외에 시장다각화가 가능해지면서 동아제약의 로열티 수입 증대에 긍정적이다.

■ Negatives: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우려? 그러나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유효

5월에 제기된 리베이트-약가인하(최대 전 품목 20% 인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거친 최종 약가인하율은 20%보다 훨씬 낮을 것이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약사가 실질적인 시행시기(원래 10월)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하반기 매출 10.7% YoY vs. 상반기 2.9% YoY)은 유효하다. 턴어라운드의 근거는 1) 쌍벌제 정착에 따른 상위사의 영업환경 개선, 2) 신제품 출시(제네릭, 신약) 및 3)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GSK와의 공동판매 매출(400억원) 인식이다.

■ 결론 :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 파이프라인 모멘텀 고려할 때 추가 상승 여력 충분

박카스의 슈퍼판매 허용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주가는 5월 바닥에서 탈출하며 31% 반등했다(2010년 12개월 forward PER 14.2배, 7년 평균 15% 할인). 상지에서 언급한 1) 실적 턴어라운드와 2) 하반기 신약 파이프라인 모멘텀이 현재의 주가 흐름을 뒷받침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다. 일부 제품들의 특허만료에 따른 약가인하 등을 반영하여 2011년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4.3%, 9.8% 하향조정하면서 목표 내재가치가 5.2% 하락했다. 그러나 그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기존의 목표주가 151,000원(DCF와 파이프라 인가치 합산, 2012년 내재 PER 17.5배)을 유지한다.

	2Q11P				증감률		2011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24	224	0.2	229	6.8	1.4	904	904
영업이익	25	25	0.2	28	(4.4)	(14.1)	111	109
영업이익률(%)	11.0	13.3	-	12.2	-	-	12.3	12.0
세전이익	23	27	15.4	29	(1.1)	(28.3)	102	107
순이익	17	21	25.4	21	0.5	(36.1)	73	79

*상기 보고서는 2011년 7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만도(060980)

매수(유지)
목표가: 270,000원(유지)
종가(7/29): 208,500원

2Q review: 수주잔고 5년치 지속

■ What's new : 예상보다 좋은 2분기 실적

K-GAAP 기준 2분기 만도 매출액은 전년대비 30.9% 증가한 6,733억원으로 예상치를 2.1% 상회했고, 영업이익은 437억원으로 예상치를 18.7% 상회했다. 이로써 영업이익률은 6.5%(전년동기 2.4%, 전분기 4.2%)를 달성했다. IFRS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은 7.5%로 전년동기 9.4%보다 낮지만 전분기 6.8%에서 회복했다.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순이익은 우리 예상치를 3% 상회한 79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이유는 예상보다 큰 영업 리버리지 효과와 빠른 제품믹스 개선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주가 랠리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 고객(현대차, 기아차, GM 등)의 영업 호황으로 동사 실적도 양호한 상태이며, 일본 지진 피해로 인한 글로벌 자동차산업 공급망 파괴, 엔고 지속,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대 중이어서 해외 OE 수주가 만도에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7월 13일 KCC가 만도 주식 311만주(지분율 17.1%) 전량 블록딜로 매각해서 오버행 이슈가 완전히 해결된 점도 주가에 호재로 판단된다.

■ Positives : 수주잔고 5년치 지속

09년 하반기부터 PSA, Renault, BMW 및 VW와의 계약에 이어 최근에는 동사 최초로 일본 완성차업체인 Nissan으로부터 410억원 규모의 서스펜션 등 헨가장치를 수주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동사의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의존도는 빠른 속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해외 OE 비중은 연결 기준으로 09년 21.9%에서 10년 25.5%로 상승한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비중은 같은 기간 62.1%에서 55.8%로 낮아졌다. 10년 신규수주도 현대와 기아는 42%인 반면, GM, 유럽 OE 및 중국 로컬 비중은 각각 29%, 11%, 7%를 차지했다. 연결 기준으로 09년 말 수주량 잔고가 16조 3천억원에 달했고 10년에는 4조 9천억원(기존 목표 4조 6천억원)에 해당하는 납품 계약을 수주했다. 11년에도 목표(5조 3천억원)보다 많은 납품 계약을 수주할 전망이다. 10년 연결 매출액이 3조 6,238억원이고 10년 말 수주잔고가 18조원 수준이어서 동사는 지속적으로 5년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 Negatives : 현대모비스의 R&D 투자 급증세

현대모비스가 R&D에 집중을 하며 만도보다 2.5배 수준의 R&D 비용(10년 기준; 현대모비스 2,772억원 vs 만도 1,095억원)을 투자하고 있어, 향후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혀 나갈 전망이다.

■ 결론 :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270,000원 유지

만도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및 12개월 forward PER 15배(모비스 목표 PER)를 적용한 목표주가 270,000원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1P				증감률		2011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659.5	673.3	2.1	651.6	11.5	30.9	2,586.4	2,599.2
영업이익	36.8	43.7	18.7	35.7	72.7	257.2	151.6	132.6
영업이익률(%)	5.6	6.5	0.9	5.5	2.3	4.1	5.9	5.1
세전이익	77.1	79.4	3.0	78.9	19.8	32.7	311.6	297.3
순이익	69.4	60.8	(12.3)	68.6	6.5	16.0	249.3	255.8

* K-GAAP 기준
자료: 만도, 한국투자증권

*상기 보고서는 2011년 7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서울반도체(046890)

종립(유지)
목표가: 30,000원(유지)
종가(7/28): 31,600원

2Q11 review: 3분기 조명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

■ What's new : 조명매출의 호조로 TV BLU향 매출의 급락 상쇄

이번 2분기 실적은 우리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비슷한 수준(2,106억원, +0% qoq)에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178억원(영업이익률 8.6%)으로 같은 기간 29% 증가했기 때문이다(우리 추정치는 153억원 및 7.3% 영업이익률). TV BLU향 매출은 전분기 대비 40% 감소한 503억원으로 우리 예상치(698억원, -17% qoq)를 크게 밑돌았으나 조명매출(차량, appliance 등을 모두 포함)은 846억원으로 오히려 42% 증가, 매출처 mix 개선에 따른 이익률 상승을 실현했다(조명사업의 매출 비중은 1분기 29%에서 2분기 41%로 급증).

■ Positives : 2분기 조명매출은 세계 전 지역에서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퍼센티지로 성장

동사 경영진에 따르면 2분기 조명매출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퍼센티지 성장을 이루어 냈다. 이는 지진사태 이후 일본의 LED 수요 급증으로 아시아 지역 전반에서의 조명용 매출 성장이 2분기 동사의 조명용 매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한 우리기대를 상회하는 결과다. 최근 일본 상황을 보면 LED 조명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이유는 원전 가동률 감소에 따른 전력 공급의 부족으로 내년 여름 전력대란(수요 대비 9%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 Asahi 보도에 따르면 지진 전 일본 내 전력 공급의 30%를 담당했던 54개 원전 중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겨우 16개 뿐이다. 최근의 판매 호조로 일본이 서울반도체 조명사업의 제 2시장(가장 큰 시장은 유럽)으로 올라선 점을 감안하면 향후 동사의 조명매출이 현재 우리 추정치(3분기 827억원)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 Negatives : 경영진의 하반기 전망치는 downside 우려가 다소 있다고 판단

비록 2분기 이익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동사의 상반기 실적(매출 4,155억원, 영업이익 316억원, 영업이익률 8%)은 연초에 제시된 가이드스(매출 1.1조원, 영업이익 1,300억원) 대비 각각 38%, 24%에 그친다. 그러나 경영진은 하반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익전망을 토대로 가이드스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밝혔는데, 우리는 2분기 조명향 실적이 개선을 보였지만 앞으로도 현재의 높은 성장성을 유지할지, 그리고 TV업황이 다시 회복할지 여부 등에 대해 아직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

■ 결론 : 서울반도체의 secular growth 스토리는 아직... 투자 의견 '중립' 유지

투자 의견 '중립' 및 목표주가 30,000원(2.6x 12MF BPS)을 현재로선 유지하지만 하반기 및 2012F 실적 전망을 조정할 계획이다. 주가는 이번 실적에 따른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요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격경쟁 심화로 이익이 감소 추세에 있는 글로벌 LED조명업체들(Cree, Philips Lighting 등)을 볼 때([그림 2]) 서울반도체가 예상하는 하반기 호조 전망은 현 시점에서 다소 확신하기 어렵다. Cree가 8월 9일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글로벌 조명용 LED 업황에 대한 하반기 전망이 더 구체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단위: 십억원, %)

	2Q11A				증감률		2011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10.6	208.1	-1%	232.6	0%	-3%	866.8	1,005.3
영업이익	15.3	17.8	16%	20.0	29%	-39%	69.5	99.9
영업이익률(%)	7.3%	8.6%		8.6%			8.0%	9.9%
세전이익	11.4	21.1	86%	31.6	148%	-46%	61.6	107.8
순이익	9.3	17.3	86%	18.5	293%	-46%	48.0	85.2

*상기 보고서는 2011년 7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모비스(012330)

매수(유지)
목표가: 470,000원(유지)
종가(7/28): 392,000원

견고한 수익 지속될 전망

■ What's new : 영업이익은 예상치에 부합

2분기 현대모비스 매출액은 4조 332억원(+15% YoY)으로 추정치와 유사하며 IFRS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한 5,566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영업이익률 13.8%를 달성했다. K-GAAP 기준으로 환산한 영업이익률은 14%로 예상치에 부합했다. IFRS 연결기준 순이익은 8,983억원으로 전년동기 23.4%, 전분기대비 12.2%의 탁월한 성장세를 보였다.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순이익은 우리 예상치를 16.1% 상회한 8,977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이유는 탁월한 현대차의 실적으로 지분법이익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2분기 현대차, 기아차 합산 판매는 해외공장 판매(767,719대, +22% YoY) 강세로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1,658,572대에 달했다. 부품사업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했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8.3% 감소한 3,086억원을 기록했다. 모듈사업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8.3%에서 8.2%로 소폭 하락했다.

■ Positives : 견고한 수익 지속될 전망

현대차와 기아차의 글로벌시장에서의 선전과 동사의 해외 OE 매출 확대로 인해 견고한 수익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Automotive News가 선정한 'Top 100 Global Suppliers' 랭킹에서 07년 27위, 08년 19위, 09년 12위에 이어 10년에는 8위를 기록해 글로벌 Top 10 대열에 합류했다. 게다가 지난 6월에는 Mitsubishi와 Subaru로부터 2억 3,300만달러 규모의 램프를 수주했다. 동사의 일본 수주는 최초이며 수주 금액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단일 품목으로 일본에서 수주한 최대 규모다. 해외 OE 매출액 비중은 7~8% (연결 모듈 매출액 기준)에 불과하지만 10년 해외 OE 매출액은 전년대비 118%나 성장한 1조 2천억원을 기록해 기존 목표인 8억 8천만달러를 크게 초과했다.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글로벌 자동차산업 공급망이 파괴된 것은 국내 부품업체들 중 동사에게 가장 큰 손해가 될 전망이다.

■ Negatives : 증가하는 R&D 비용

현대모비스는 급성장하는 전자부품 사업부에 집중하면서 R&D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동사는 R&D 비용으로 09년 2,043억원, 10년 3,200억원을 투자했고 11년 3,600억원, 15년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결론 :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470,000원 유지

현대모비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12개월 forward PER 15배(업종 평균 목표 PER 20% 할증)를 적용한 목표주가 470,000원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1P				증감률		2011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4,009.3	4,033.2	0.6	4,086.0	5.1	15.0	15,420.4	15,842.4
영업이익	564.6	565.1	0.1	569.3	0.0	18.4	2,166.7	2,173.6
영업이익률(%)	14.1	14.0	(0.1)	13.9	(0.7)	0.4	14.1	13.7
세전이익	972.8	1,151.1	18.3	1,049.0	10.4	32.8	3,939.7	4,001.8
순이익	773.3	897.7	16.1	817.9	12.2	31.0	3,132.0	3,150.7

* K-GAAP 기준
 자료: 현대모비스, 한국투자증권

*상기 보고서는 2011년 7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차(005380)

매수(유지)
목표가: 320,000원(유지)
종가(7/28): 239,000원

탁월한 실적 지속될 전망

■ What's new : 예상보다 탁월한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은 우리의 예상치를 상회했다. 매출액은 10조 9,900억원(+15% YoY)으로 예상치에 부합했고 IFRS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1조 1,500억원(+15% YoY)을 기록했다. 이로써 영업이익률은 10.5%이다. K-GAAP 기준으로 환산한 영업이익률은 10.4%로 우리 예상치 9.8%를 상회했다. 영업이익률이 예상치를 상회한 이유는 제품믹스 개선으로 수출 ASP 상승폭이 추정치를 상회했기 때문이다. 내수와 수출 ASP는 각각 전년동기 2,260만원, 13,300달러에서 2,350만원, 16,100달러(예상치 2,330만원, 15,165달러)로 상승했다. IFRS 연결기준 순이익은 더욱 탁월한 성장세를 보여 2조 3,072억원(+37.3% YoY, +22.9% QoQ)을 기록했다.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순이익은 우리 예상치를 12.9% 상회한 2조 1,400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 증가율이 더욱 컸던 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상장으로 일회성 수익 1,680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Positives : 탁월한 실적 지속될 전망

2분기 현대차 판매대수는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한 1,036,904대를 기록했다. 동사는 탁월한 실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1) 제품믹스 개선과 글로벌 재고가 역사적 최저 수준(6월말 2개월분)이어서 높은 가동률이 지속될 전망이고 2) 빠르게 기아차와 platform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Platform 통합으로 생산된 모델의 매출비중은 상반기에 61.6%(전년동기 25%)까지 상승했고 11년 연간으로는 67%(10년 3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력있는 신모델 출시와 브랜드 이미지가 현저히 좋아지고 있어 일본업체들의 생산 회복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판매 강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J.D. Power가 27일(미국시간) 발표한 Automotive Performance, Execution and Layout (APEAL) Study에서 현대차의 Equus가 전체 차종 중 최고 높은 점수(904점)를 기록하며 2010년 28위에서 15위(20개 일반 브랜드 중 16위 → 3위)로 올라섰다. 이는 6월에 Equus가 IQS의 large premium car 부문 2위를 수상한데 이어 나온 또 하나의 호재이다.

■ Negatives : 생산능력 부족 및 노사문제

현대차의 주요 해외공장 3곳(미국, 중국, 인도)의 가동률은 현재 120%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노조 전임자 수 감축 및 비정규직 이슈도 남아있다.

■ 결론 :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320,000원 유지

현대차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20,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PER 13배를 적용했고 이는 역사적 최고치에서 20% 할인한 것이다.

(단위: 십억원, %, %p)

	2Q11P		차이	컨센서스	증감률		2011F	
	추정	실적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0,936.5	10,990.0	0.5	10,738.5	17.8	15.0	39,627.8	40,120.3
영업이익	1,072.4	1,142.0	6.5	1,076.9	27.7	32.3	3,972.5	3,917.4
영업이익률(%)	9.8	10.4	0.6	10.0	0.8	1.4	10.0	9.8
세전이익	2,312.1	2,562.9	10.8	2,253.4	11.4	49.7	8,780.7	8,484.0
순이익	1,895.5	2,140.0	12.9	1,845.1	22.1	54.0	7,331.9	7,013.7

* K-GAAP 기준
 자료: 현대차, 한국투자증권

*상기 보고서는 2011년 7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7/22(금)	7/25(월)	7/26(화)	7/27(수)	7/28(목)	7/29(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171.23	2,150.48	2,168.70	2,174.31	2,155.85	2,133.21	
	등락폭	26.19	-20.75	18.22	5.61	-18.46	-22.64	
	등락종목	상승(상한)	588(10)	335(7)	527(3)	466(9)	353(9)	340(9)
		하락(하한)	246(0)	489(0)	317(0)	376(1)	477(1)	487(1)
	ADR	120.01	120.79	124.17	122.74	117.75	113.50	
	이격도	10 일	101.44	100.50	101.08	101.13	100.15	99.15
		20 일	101.70	100.54	101.15	101.22	100.23	99.16
	투자심리	50	50	60	60	50	40	
	거래량 (백만 주)	408	338	316	294	295	325	
	거래대금 (십억 원)	7,228	5,813	6,475	6,232	5,770	5,938	
코스닥	코스닥지수	531.24	529.90	535.85	538.12	538.54	536.05	
	등락폭	6.70	-1.34	5.95	2.27	0.42	-2.49	
	등락종목	상승(상한)	582(14)	352(17)	591(20)	516(17)	391(11)	379(11)
		하락(하한)	359(2)	596(5)	344(1)	425(2)	547(2)	565(2)
	ADR	118.71	116.34	120.97	120.85	116.35	110.54	
	이격도	10 일	103.90	103.00	103.25	102.83	102.11	101.08
		20 일	106.57	105.72	106.26	106.06	105.53	104.51
	투자심리	80	70	80	80	80	70	
	거래량 (백만 주)	479	464	501	508	584	481	
	거래대금 (십억 원)	2,253	2,087	2,486	2,611	2,590	2,483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490.6	1,050.2	1,280.4	282.5	127.2	538.4	102.3	51.2	178.8	199.0
	매도	3,376.1	1,197.6	1,131.0	237.4	128.0	495.1	69.1	51.8	149.6	315.5
	순매수	114.5	-147.4	149.4	45.1	-0.8	43.3	33.2	-0.7	29.2	-116.5
	7 월 누계	-1,253.2	1,371.1	806.5	713.7	330.5	22.9	678.5	-1,584.0	644.9	-924.4
	11 년 누계	2,326.3	-817.4	517.6	2,348.8	-673.1	-4,785.3	1,443.4	-1,433.2	3,616.9	-2,026.6
코스닥	매수	2,279.6	74.6	132.9	14.8	15.5	65.8	5.1	7.0	24.7	24.2
	매도	2,311.9	95.7	78.6	19.3	13.0	30.7	3.5	3.1	9.0	25.1
	순매수	-32.3	-21.2	54.3	-4.5	2.5	35.1	1.5	3.9	15.8	-0.9
	7 월 누계	-175.8	-204.3	422.0	58.1	133.3	120.6	36.2	35.5	38.3	-41.9
	11 년 누계	63.4	187.0	43.2	87.6	102.9	-162.4	21.5	-57.3	50.9	-293.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44,184	운수장비 -30,756
서비스업	26,760	금융업 -29,549
화학	20,295	철강및금속 -25,296
하이닉스	65,787	현대제철 -24,411
SK이노베이션	14,677	만도 -13,814
OCI	10,987	대우조선해양 -12,995
동국제강	10,127	삼성테크윈 -12,554
KT	9,921	고려아연 -11,302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9,828	서비스업 -7,362
음식료품	4,946	철강및금속 -3,862
화학	4,382	금융업 -3,118
하이닉스	34,620	한화케미칼 -7,478
기아차	4,306	GS -6,893
CJ제일제당	4,138	태영건설 -4,721
삼성화재	3,260	삼성테크윈 -4,453
GKL	3,184	NHN -2,801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7,482	운수장비 -5,990
서비스업	3,458	증권 -2,046
의약품	823	유통업 -2,045
하이닉스	9,700	LS산전 -4,623
SK이노베이션	2,253	현대모비스 -4,605
삼성테크윈	1,842	KT -2,033
LS	1,177	롯데쇼핑 -1,849
엔씨소프트	955	현대차 -1,69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3,246	철강및금속 -8,248
통신업	4,458	유통업 -6,463
운수장비	3,416	금융업 -5,435
하이닉스	22,385	LG디스플레이 -7,536
기아차	13,344	롯데쇼핑 -6,800
SK텔레콤	3,321	현대제철 -6,385
삼성SDI	2,143	현대모비스 -5,448
현대해상	1,952	LG전자 -3,808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10,796	금융업 -37,717
서비스업	50,496	철강및금속 -27,694
화학	21,551	운수장비 -25,207
하이닉스	144,965	현대제철 -22,278
SK이노베이션	27,886	롯데쇼핑 -19,392
기아차	27,740	LS산전 -15,771
삼성SDI	11,642	삼성테크윈 -15,244
호남석유	9,963	현대모비스 -13,767
LG생활건강	8,477	대우조선해양 -13,707
동국제강	8,339	하나금융지주 -13,492
LG화학	8,246	고려아연 -13,432
CJ	7,771	LS -11,635
엔씨소프트	7,465	한화케미칼 -11,073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금융업	12,246	화학 -51,763
운수장비	8,489	전기,전자 -39,054
증권	4,796	서비스업 -26,780
삼성전자	47,115	LG디스플레이 -46,769
하나금융지주	33,711	하이닉스 -27,135
현대차	14,999	OCI -21,916
효성	12,522	신한지주 -19,656
고려아연	12,262	SK이노베이션 -18,624
기아차	10,579	현대모비스 -17,403
삼성생명	6,751	코오롱인더 -14,272
삼성SDI	5,382	삼성전기 -11,808
삼성엔지니어링	4,800	GS -11,638
LS	4,201	한국전력 -9,94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12,060	금속	-292
기계,장비	4,866	미분류	-175
인터넷	4,359	제약	-163
서울반도체	5,265	CJ E&M	-2,155
하림	4,194	성광벤드	-682
다음	3,639	태웅	-544
원익IPS	3,359	KH바텍	-482
CJ오쇼핑	2,472	대주전자재료	-442

연		기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3,350	디지털컨텐츠	-2,081
교육	1,844	출판,매체복제	-186
소프트웨어	1,782	운송장비,부품	-184
메가스터디	1,844	네오위즈게임즈	-2,119
서울반도체	1,511	KH바텍	-450
엘엠에스	1,383	메디포스트	-438
골프존	1,360	원익IPS	-430
심텍	1,106	포스코엠텍	-40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교육	1,920	음식료,담배	-520
디지털컨텐츠	624	반도체	-328
소프트웨어	561	사업지원	-235
메가스터디	1,918	덕산하이메탈	-926
서울반도체	525	하림	-327
CJ E&M	472	진로발효	-244
골프존	365	SK컴즈	-204
진성티이씨	338	심텍	-20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3,654	디지털컨텐츠	-2,969
소프트웨어	1,421	출판,매체복제	-2,307
금속	906	인터넷	-1,821
서울반도체	2,033	네오위즈게임즈	-3,332
STS반도체	774	SK컴즈	-2,435
씨젠	669	에스엠	-2,370
다음	614	에스에프에이	-313
한국정밀기계	604	실리콘웍스	-299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20,389	디지털컨텐츠	-632
교육	5,854	운송장비,부품	-522
소프트웨어	5,137	의료,정밀기기	-480
서울반도체	10,162	네오위즈게임즈	-4,410
메가스터디	5,788	SK컴즈	-2,601
다음	4,090	CJ E&M	-1,731
원익IPS	3,906	메디포스트	-1,538
하림	3,447	KH바텍	-932
CJ오쇼핑	2,916	에스엠	-817
골프존	2,744	실리콘웍스	-530
네오위즈	2,219	휴맥스	-482
심텍	1,987	제이엔케이히터	-482
에스에프에이	1,677	SBS콘텐츠허브	-463

외		국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10,380	교육	-11,100
비금속	1,615	디지털컨텐츠	-4,720
오락,문화	1,108	인터넷	-3,421
크루셜텍	11,072	메가스터디	-11,035
포스코엠텍	2,606	네오위즈게임즈	-5,231
실리콘웍스	1,693	다음	-4,806
씨젠	1,486	셀트리온	-4,419
SK컴즈	1,402	서울반도체	-2,079
SBS콘텐츠허브	1,306	CJ오쇼핑	-1,701
파라다이스	1,198	GS홈쇼핑	-1,637
제이엔케이히터	1,151	하나투어	-1,386
아가방컴퍼니	1,087	AP시스템	-1,215
에코프로	558	SK브로드밴드	-1,14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광유리	19 일	기업은행	27 일
락앤락	17 일	대한유화	15 일
케이피케미칼	15 일	한진해운홀딩스	10 일
아모레G	11 일	SK C&C	10 일
롯데제과	11 일	현대차	9 일
NHN	11 일	현대하이스코	9 일
S&T중공업	10 일	삼성생명	9 일
STX팬오션	10 일	현대글로벌비스	9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SK브로드밴드	13 일	OCI머티리얼즈	10 일
원익IPS	12 일	파트론	8 일
하이록코리아	11 일	CJ E&M	8 일
서울반도체	11 일	동진세미켐	6 일
메가스터디	11 일	덕산하이메탈	5 일
모두투어	11 일	KCC건설	4 일
비에이치아이	11 일	시그네티스	4 일
CJ오쇼핑	8 일	평화항공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기아차	180,681	삼성전자	168,134
POSCO	179,945	현대차	130,696
SK이노베이션	139,727	하나금융지주	74,918
S-Oil	134,592	고려아연	56,696
하이닉스	132,542	기아차	48,098
NHN	110,673	대우건설	30,688
대우건설	64,107	삼성생명	28,680
SK	54,836	CJ제일제당	21,923

KOSDAQ			
기	관	외	국 인
서울반도체	24,765	크루셜텍	8,738
다음	24,656	덕산하이메탈	7,871
메가스터디	18,813	AP시스템	5,482
CJ오쇼핑	13,604	CJ E&M	4,291
차바이오앤	11,425	인터플렉스	4,205
젬백스	10,657	네오위즈게임즈	3,911
에스에프에이	10,392	OCI머티리얼즈	3,616
덕산하이메탈	9,757	포스코컴텍	3,441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의약품	14,864	2,842	17,706
보험	10,874	1,541	12,414
건설업	3,815	1,428	5,243
기아차	27,740	10,579	38,319
삼성SDI	11,642	5,382	17,024
CJ	7,771	3,635	11,406
다우기술	5,803	197	6,000
일진머티리얼즈	4,172	530	4,702
POSCO	3,731	277	4,008
현대건설	2,635	1,170	3,805
한화	2,944	494	3,438
현대글로벌비스	995	2,257	3,253
두산	1,463	1,643	3,106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IT부품	2,445	10,380	12,824
비금속	577	1,615	2,192
오락,문화	80	1,108	1,188
원익IPS	3,906	316	4,222
하림	3,447	65	3,512
포스코컴텍	524	2,606	3,130
골프존	2,744	35	2,779
씨젠	1,006	1,486	2,492
심텍	1,987	78	2,064
덕산하이메탈	1,442	445	1,887
STS반도체	1,591	4	1,595
이노와이어	1,002	130	1,132
위메이드	1,047	41	1,08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물산	8 일	아모레퍼시픽	18 일
한진중공업	8 일	웅진케미칼	16 일
대한전선	7 일	대교	15 일
삼성전기	7 일	한일시멘트	14 일
고려아연	6 일	롯데제과	14 일
삼성테크윈	6 일	대덕전자	14 일
LG디스플레이	6 일	S-Oil	14 일
LG전자	6 일	한전기술	13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동서	8 일	태광	16 일
메디포스트	7 일	모두투어	12 일
아트라스BX	6 일	메가스터디	11 일
미래나노텍	5 일	하이록코리아	6 일
네오위즈게임즈	5 일	비에이치아이	6 일
성우하이텍	4 일	CT&T	5 일
평화정공	4 일	CJ오쇼핑	4 일
태웅	4 일	에스에프에이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테크윈	-130,393	현대중공업	-136,810
삼성전자	-109,973	POSCO	-90,098
삼성물산	-76,881	하이닉스	-79,516
삼성엔지니어링	-71,488	한국전력	-75,682
LG디스플레이	-66,262	NHN	-73,704
고려아연	-56,081	LG디스플레이	-63,676
롯데쇼핑	-41,979	GS건설	-54,218
현대중공업	-37,955	LG	-51,731

KOSDAQ			
기	관	외	국 인
네오위즈게임즈	-17,493	메가스터디	-34,123
셀트리온	-10,934	다음	-28,018
CJ E&M	-10,638	셀트리온	-20,749
메디포스트	-9,502	CJ오쇼핑	-11,075
오텍	-6,428	이노와이어	-3,990
KH바텍	-3,865	에스에프에이	-3,761
태웅	-2,622	태광	-3,231
로엔	-2,177	젠탭스	-2,663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유통업		-10,922		-15,565		-26,487
기계		-2,127		-4,503		-6,630
종이, 목재		-309		-1,171		-1,480
LG디스플레이		-3,128		-46,769		-49,896
현대모비스		-13,767		-17,403		-31,170
현대제철		-22,278		-8,377		-30,655
신한지주		-8,885		-19,656		-28,542
롯데쇼핑		-19,392		-2,219		-21,612
GS		-7,436		-11,638		-19,074
LS산전		-15,771		-1,521		-17,292
KB금융		-10,572		-5,566		-16,139
삼성전기		-3,718		-11,808		-15,526
S-Oil		-7,597		-6,082		-13,678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디지털컨텐츠			-632	-4,720		-5,351
제약			-129	-1,359		-1,487
금속광업			0	-750		-750
네오위즈게임즈			-4,410	-5,231		-9,640
KH바텍			-932	-813		-1,745
AP시스템			-287	-1,215		-1,502
태광			-301	-921		-1,222
에스엠			-817	-187		-1,005
성우하이텍			-378	-61		-439
LIG에디피			-417	-16		-432
디지텍시스템			-169	-262		-432
포스코엠텍			-207	-135		-343
미래나노텍			-1	-331		-33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기	231	20,234
LG전자	160	13,106
POSCO	26	12,320
두산인프라코어	377	10,179
S-Oil	60	9,406
현대차	38	9,161
기아차	96	7,524
대한항공	111	7,45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서울반도체	242	7,491
셀트리온	103	4,902
메가스터디	6	861
포스코컴텍	3	497
다음	3	457
엘엠에스	19	434
평화정공	20	420
AP시스템	23	368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POSCO	9,099	4,249,015
OCI	3,889	1,633,440
삼성전자	1,723	1,441,948
현대차	3,977	950,590
LG전자	9,953	811,171
하이닉스	30,655	721,916
두산인프라코어	22,682	611,273
대우인터내셔널	14,334	595,57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8,181	395,540
서울반도체	6,274	198,257
원익IPS	4,188	35,763
OCI머티리얼즈	218	27,759
태웅	550	27,667
메가스터디	173	26,925
주성엔지니어링	1,784	26,668
테크노세미켐	523	26,043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건설업	2,023	기계	-1,667
통신업	1,798	의약품	-465
운수창고	1,403	은행	-434
대우건설	1,805	하이닉스	-1,371
LG유플러스	1,392	두산인프라코어	-1,049
한화케미칼	1,200	대우조선해양	-994
삼성중공업	852	한라공조	-860
삼성전기	820	대우증권	-456
하나금융지주	668	기업은행	-436
현대상선	466	남해화학	-247
LG전자	432	삼성테크윈	-220
SK텔레콤	406	광동제약	-201
KB금융	350	제일모직	-18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반도체	965	금속	-98
통신서비스	172	IT부품	-76
기계,장비	52	컴퓨터서비스	-75
서울반도체	489	에이스디지텍	-174
주성엔지니어링	240	셀트리온	-148
SK브로드밴드	172	젠타스	-64
에스엔유	112	성광벤드	-63
덕산하이메탈	110	다원시스	-55
루멘스	105	파라다이스	-54
AP시스템	90	코오롱아이넷	-42
신화인터텍	80	포스코 ICT	-35
차바이오템	80	마이크로컨텍슬	-31
세운메디칼	63	유성티엔에스	-28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7/25(월)	7/26(화)	7/27(수)	7/28(목)	7/29(금)
외국인	-817.4	1,371.1	-431.8	-61.0	-55.6	-41.8	-126.0	-147.4
기관계	517.6	806.5	688.5	25.4	185.0	277.6	51.2	149.4
(투신)	-4,785.3	22.9	-1.3	-85.2	75.0	31.1	-65.6	43.3
(연기금)	3,748.0	629.5	211.4	25.0	32.5	98.6	28.0	27.3
(은행)	-1,433.2	-1,584.0	39.1	27.4	-11.1	10.2	13.2	-0.7
(보험)	-673.1	330.5	75.7	15.7	48.8	33.9	-22.0	-0.8
개인	2,326.3	-1,253.2	-37.6	141.2	-167.0	-257.1	130.9	114.5
기타	-2,026.6	-924.4	-219.2	-105.5	37.6	21.2	-56.1	-116.5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7/22(금)	7/25(월)	7/26(화)	7/27(수)	7/28(목)
KOSPI	1,124.47	1,682.77	2,051.00	2,171.23	2,150.48	2,168.70	2,174.31	2,155.85
고객예탁금	9336.3	12072.0	14068.5	17153.8	16869.7	17167.6	16821.2	17183.3
(증감액)	-746.3	-714.3	-228.9	308.4	-284.1	297.9	-346.4	362.1
(회전율)	46.9	52.6	51.5	56.2	47.7	53.7	53.3	49.5
실질예탁금 증감	-624.7	-551.4	-655.2	-5.9	-262.0	-204.0	-228.8	129.3
신용잔고	1502.0	4359.5	5938.3	6259.3	6252.2	6241.5	6224.1	6288.9
미수금	145.1	240.2	192.3	213.9	224.8	164.9	201.0	183.3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7/22(금)	7/25(월)	7/26(화)	7/27(수)	7/28(목)
전체 주식형	101,606	-4,471	-29	47	9	203	37	-23
(ex. ETF)		-6,703	-576	-12	-79	99	25	-52
국내 주식형	67,842	689	633	79	39	232	67	18
(ex. ETF)		-1,552	87	20	-48	128	55	-10
해외 주식형	33,764	-5,159	-662	-31	-31	-30	-30	-42
(ex. ETF)		-5,152	-662	-31	-31	-30	-30	-42
주식 혼합형	12,366	363	-81	-5	-15	1	11	-5
채권 혼합형	19,292	-294	72	-26	-24	-20	-26	-37
채권형	48,459	-4,452	324	-204	-4	-14	75	30
MMF	53,224	-14,685	-683	254	-1,379	-520	-442	-1,69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7/25(월)	7/26(화)	7/27(수)	7/28(목)	7/29(금)
한 국	-560	-2,333	-380	-58	-30	-40	-120	-133
대 만	-966	-622	-346	-31	108	-167	-257	-
인 도	2,207	-1,156	69	54	-10	25	-	-
인도네시아	2,658	-28	49	-12	10	50	1	-
태국	757	-551	300	61	118	91	31	-
남아공	64	-69	-129	-23	-82	-113	88	-
필리핀	665	68	16	9	-4	4	-1	8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0년	7/22(금)	7/25(월)	7/26(화)	7/27(수)	7/28(목)	7/29(금)
회사채 (AA-)	4.27	4.48	4.51	4.53	4.52	4.50	4.54
회사채 (BBB-)	10.26	10.47	10.50	10.52	10.51	10.50	10.54
국고채 (3년)	3.38	3.79	3.82	3.84	3.82	3.81	3.85
국고채 (5년)	4.08	3.98	4.00	4.02	4.00	3.98	4.02
국고채 (10년)	4.52	4.18	4.19	4.23	4.23	4.19	4.20
미 국채 (10년)	3.36	2.96	3.00	2.95	2.98	2.95	-
일 국채 (10년)	1.13	1.10	1.10	1.10	1.09	1.08	-
원/달러	1,134.80	1,051.90	1,056.20	1,051.10	1,050.00	1,051.70	1,054.50
원/엔	1,392.56	1,343.00	1,351.00	1,347.00	1,349.00	1,351.00	1,359.00
엔/달러	81.49	78.32	78.21	78.04	77.83	77.89	77.59
달러/유로	1.33	1.43	1.43	1.44	1.44	1.42	1.42
DDR3 1Gb (1333MHz)	1.09	0.81	0.81	0.81	0.81	0.80	-
NAND Flash 16Gb (MLC)	4.84	2.64	2.64	2.62	2.61	2.60	-
CRB 지수	327.11	347.93	345.89	348.75	346.73	344.65	-
LME 지수	4,164.25	4,272.5	4,269.3	4,338.6	4,329.0	4,332.7	-
BDI	1,773	1,323	1,317	1,310	1,296	1,278	-
유가 (WTI, 달러/배럴)	89.84	99.64	98.97	99.59	97.40	97.44	-
금 (달러/온스)	1,405.90	1,601.50	1,612.20	1,616.80	1,615.10	1,613.4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109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증감
7월 25일	279.66	281.40	1.24	1.74	1.25	262,509	93,358	-2,276
7월 26일	282.04	283.10	1.22	1.06	1.74	262,321	95,124	1,766
7월 27일	282.70	283.85	1.20	1.15	1.57	217,457	97,976	2,852
7월 28일	280.04	281.60	1.16	1.56	1.32	307,410	98,598	622
7월 29일	277.11	278.15	1.14	1.04	1.30	341,420	99,576	978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7월 25일	-5,266	2,755	1,016	135	474	147	85	156
7월 26일	1,292	212	-938	-1,324	206	146	-35	28
7월 27일	3,697	-330	-3,102	-2,700	107	-145	-307	-52
7월 28일	-3,697	86	3,484	3,282	-20	-41	268	64
7월 29일	-6,278	5,048	957	1,225	-322	-124	120	5
누적포지션	-7,996	10,608	-2,120	-967	-304	493	-1,551	-426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7월 25일	623	581	-42	408	472	64	215	109	-106	9,576	9,230
7월 26일	661	1,157	496	605	795	191	56	362	305	9,438	9,395
7월 27일	601	755	154	517	586	69	85	169	84	9,399	9,444
7월 28일	601	719	118	382	563	181	219	155	-64	9,438	9,425
7월 29일	764	716	-47	542	602	59	221	115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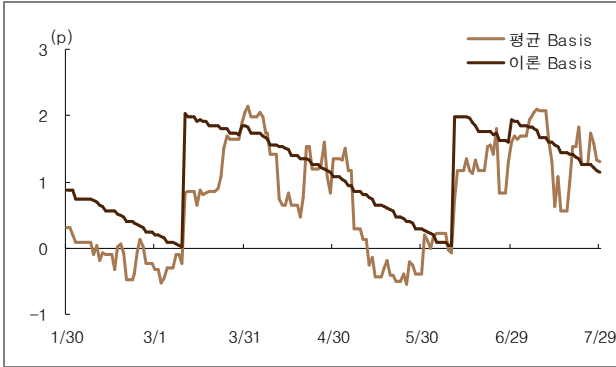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19.69	24,008	995,853	0.37	292.50	15.30	500	51	18.41
	19.85	78,347	1,538,802	0.62	290.00	13.25	1,774	171	20.80
	20.37	39,202	1,089,639	1.04	287.50	11.15	1,728	-57	20.95
	20.98	58,672	1,001,885	1.65	285.00	9.25	10,231	975	21.38
	21.20	6,619	337,646	2.39	282.50	7.60	34,201	-754	22.12
	21.99	7,778	109,119	3.45	280.00	6.05	102,556	-2,990	22.29
	22.63	7,726	53,843	4.70	277.50	4.65	125,989	2,982	22.19
	22.73	1,656	16,071	6.05	275.00	3.75	654,044	-6,688	23.49
	23.60	149	1,709	7.75	272.50	2.81	985,646	-7,911	23.66
	23.82	342	1,845	9.50	270.00	2.16	1,179,534	1,013	24.45
	24.28	18	113	11.45	267.50	1.59	946,169	271	2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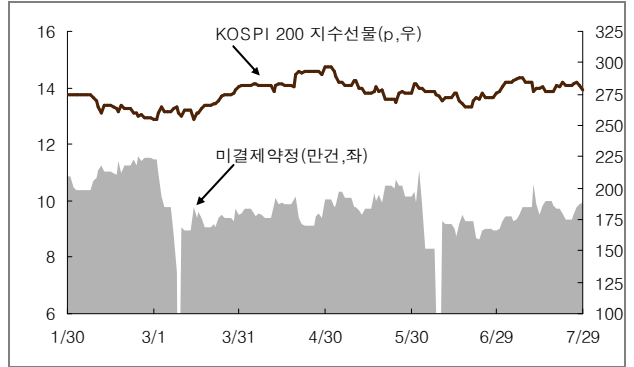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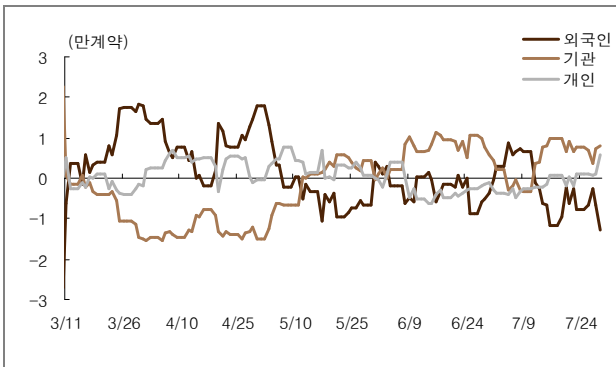
- 평균 Basis: 1.30 (전 거래일 대비 0.02p 하락)
- 이론 Basis: 1.14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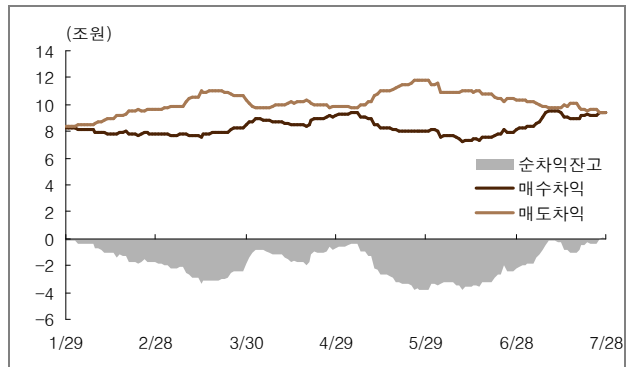
- 미결제 약정수량: 전 거래일 대비 978 계약 증가한 99,576 계약
- 선물가격(278.15): 전 거래일 대비 3.45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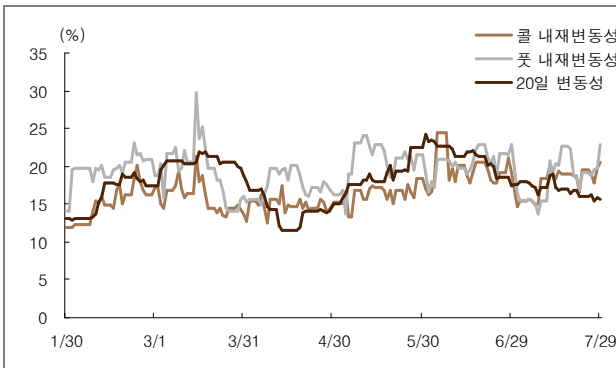
- 외국인: 6,278 계약 순매도
- 기관: 957 계약 순매수 / 개인: 5,048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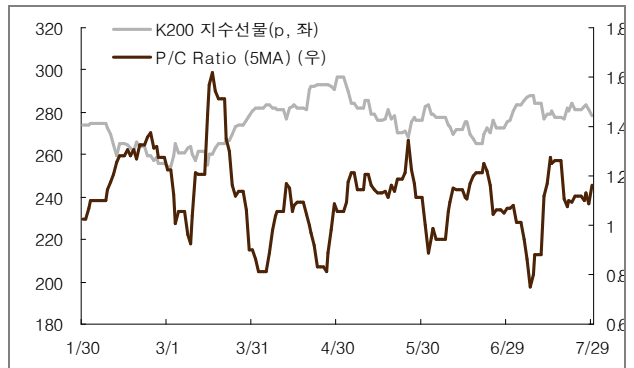
- 차익거래: 1,067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592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20.5% / 풋 22.9%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5.66%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16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1년 9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5	26	27	28	29
美> 5월 CS 20개 도시주택가격 MoM SA (-0.05%, 0.00%, -0.09%) 7월 소비자자기대지수 (59.5, 56.0, 58.5) 7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1, 5, 3) 6월 신규주택매매 MoM (-1.0%, 0.3%, -2.1%)	美> 6월 개인소득 MoM (n/a, 0.2%, 0.3%) 日> 7월 본원통화 YoY (n/a, n/a, 17.0%) 실적발표> 韓 풍산	韓> 2Q 실질 GDP QoQ (0.8%, 0.8%, 1.3%) 8월 BSI-제조업 (91, n/a, 90) 8월 BSI-비제조업 (83, n/a, 84)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5.0%, n/a, 15.5%) 6월 내구재 신규수주 MoM (-2.1%, 0.3%, 1.9%)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9.8만, 41.5만, 42.2만) 6월 미결주택매매 MoM (2.4%, -2.0%, 8.2%)	韓> 6월 산업생산 YoY (6.3%, 7.0%, 8.1%) 美> 2Q GDP QoQ(연간화) (n/a, 1.8%, 1.9%) 7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n/a, 64.0, 63.8) 中> 6월 경기선행지수 (101.76, n/a, 101.92) 日> 6월 산업생산 YoY (-1.6%, -1.2%, -5.5%) 6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YoY (0.2%, 0.2%, 0.3%) 6월 자동차생산 YoY (-13.9%, n/a, -30.9%) 6월 건설수주 YoY (6.0%, n/a, 25.5%) 6월 주택착공건수 YoY (5.8%, 4.6%, 6.4%)
1	2	3	4	5
韓>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4.4%, 4.4%) 7월 대외무역-수출 YoY (n/a, 17.1%, 13.6%) 7월 대외무역-수입 YoY (n/a, 26.1%, 27.5%) 美> 7월 ISM 제조업지수 (n/a, 55.0, 55.3) 7월 ISM 구매물가지수 (n/a, 64.0, 68.0) 유럽> 7월 PMI-제조업 (n/a, 50.4, 50.4) 中> 7월 PMI-제조업 (n/a, 50.1, 50.9) 日> 7월 자동차 판매 YoY (n/a, n/a, -23.3%)	美> 6월 개인소득 MoM (n/a, 0.2%, 0.3%) 日> 7월 본원통화 YoY (n/a, n/a, 17.0%) 실적발표> 韓 풍산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5.0%) 7월 ISM 비제조업지수 (n/a, 54.0, 53.3) 7월 ADP 취업자 변동 (n/a, 10.0만, 15.7만) 유럽> 6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n/a, -0.9%, -1.8%) 7월 PMI-서비스 (n/a, 51.4, 51.4) 中> 7월 PMI-비제조업 (n/a, n/a, 57.0) 실적발표> 韓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제일모직, LS 美 타임워너, 프루덴셜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39.8만) 유럽> ECB 금리공시 (n/a, 1.50%, 1.50%) BOE 금리공시 (n/a, 0.50%, 0.50%) 실적발표> 韓 SK텔레콤, 넥센타이어 케이티스카이라이프 美 CVS/케어마크	美> 6월 소비자신용지수 (n/a, \$50.0억, \$50.8억) 7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 (n/a, 9.5만, 1.8만) 7월 실업률 (n/a, 9.2%, 9.2%) 日> BOJ 금리결정 (n/a, n/a, 0.10%) 실적발표> 韓 KT, 골프존 美 P&G
8	9	10	11	12
유럽> 8월 섀닉스 투자자기대지수 日> 6월 경상수지 YoY 7월 통화공급 M2 YoY 실적발표> 韓 한라건설, GKL	韓> 7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美> FOMC 금리결정 7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8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中> 7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7월 소매판매 YoY 日> 7월 소비자자기대지수	韓> 6월 통화공급 M2 YoY 7월 실업률 SA 7월 은행가계대출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中> 7월 실질 FDI YoY (미확정) 7월 무역수지 7월 대외무역-수출 YoY 7월 대외무역-수입 YoY 日> 6월 3차산업활동지수 MoM 7월 국내기업물가지수 MoM 실적발표> 韓 네오위즈게임즈 美 Cisco, 웰트디즈니	韓>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6월 무역수지 中> 7월 신규 위안 대출 (미확정) 7월 통화공급 M2 YoY (미확정) 日> 6월 기계수주 YoY 실적발표> 韓 대한생명, NHN 美 뉴스코포레이션	韓> 7월 수출물가지수 YoY 7월 수입물가지수 YoY 美> 7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日> 6월 산업생산 YoY 실적발표> 韓 삼성생명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KIS Research, Bloomberg 기준으로 작성

